

#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취임.. '경기도 복지정책 새 길 기대'

✎ 정운석 기자 | ⌚ 승인 2025.02.25 17:57

이 대표이사 "경기도 360° 돌봄정책 등 복지정책 적극 지원"  
약자의 눈물 닦아준 의사 출신 정치인...마을주치의·공동체주치의 '닉네임'



김동연 경기자사가 24일 경기복지재단 제9대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용빈 전 국회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경기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제9대 대표이사에 이용빈 전 국회의원이 24일 공식 취임했다.

이번 인사는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복지정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경험이 풍부한 분이 오셔서 든든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용빈 대표이사의 다양한 경력이 재단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빈 신임 대표이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미래 복지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 개발과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재단의 유능한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고른, 더 나은, 더 많은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복지재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 신임 대표는 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에 맞춰 △더 많은 기회로 도민 누구나 보편적인 삶의 질 제고 △더 고른 기회로 취약계층 보호 △사각지대 해소 △더 나은 기회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확장성 구현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복지재단은 이용빈 대표이사의 리더십 아래,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단은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복지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복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의 이용빈 대표이사는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광주광역시 가정의학과 의사회 회장, 광주 비정규직센터 이사장,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이사장, 광주이주민건강인권센터 이사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해 왔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의사로서의 전문성이 경기복지재단이 향후 추진할 복지정책 개발과 서비스 지원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광주에서 약자로 불리는 고려인, 이주민, 외국인노동자가 밀집해 있는 광산구 월곡동에 가정의학병원을 개원하여, 20년간 그들의 주치의로 살아오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힘써왔다.

또 광주광역시 가정의학과 의사회와 대한가정의학회 광주전남지회를 만들어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약자들이 당면해 있는 의료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또한 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운동, 지역아동센터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의 공평한 출발과 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티움과 키움 광주전남 네트워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설립하고 '광주비정규직센터'의 이사장으로 외국인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을 보호하는데 노력했다.

국회의원 시절에도 마을 주치의에서 국가공동체 주치의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 공공의료, 공교육, 공동체, 공정사회, 공공R&D 등 점점 취약해져 가는 국가와 공공의 역할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다.

상임위는 과방위, 운영위, 산자위, 기후특위, 예결특위를 맡았다. 원내대표단 원내부대표, 당 대변인, 정책위 상임부의장, 을지로위원, 소확행위원, 노동존중실천의원, 각종 코로나19국난극복TF, 공공의료TF, 후쿠시마오염수저지특위,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위 등 현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접점에서 헌신하며,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공공의료, 사회혁신, 탄소중립, 무장애, 자전거, 반려동물 정책 등으로 국민체감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와 정책 추진에 항상 한 발짝 앞서 왔다.

코로나19로 멈춰 선 당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힘썼다. 과방위원 당시 국가R&D의 역할은 이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전환적 혁신의 면모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과 인공지능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취약계층 통신비-난방비 자동감면을 위한 통감자5법을 발의해 소확행 성과를 이끌어 냈다. 우정본부로 하여금 택배상자에 손잡이를 만들어 민간업계에 '노동자 존중'의 변화의 모습을 함께 하고자 했다.

이용빈 대표이사의 폭넓은 경험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경기복지재단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운석 기자** [hkilbokj@hanmail.net](mailto:hkilbokj@hanmail.net)